

손경식

“노란봉투법 중단해달라”
취임 7년만에 첫 단독회견



Market Index

31일

코스피 지수
3245.44 (-9.03)
국고채 금리 (3년물·연%)
2.460 (+0.006)

코스닥 지수
805.24 (+1.57)
원·달러 환율
1387.00 (+3.90)

美에 3500억 달러 투자... 韓, ‘관세 15%’ 지켰다

‘MASGA 프로젝트’ 1000억 달러 포함

한미 무역협상, 시한 하루 앞두고 극적 타결

25%서 10%p 낮춰... 日·EU와 동일
미국산 LNG 등 1000억 달러 구매
車 관세 낮췄지만 12.5% 아닌 15%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 않기로
李 대통령-트럼프 2주내 정상회담

한국과 미국이 협상시한을 하루 앞두고 31일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 한국은 미국에 3500억 달러(약 488조원)를 투자하기로 하고, 미 정부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췄다. 상호관세 15%는 이날 미국이 책정한 25%에서 10%포인트 인하된 세율이며, 일본·유럽연합(EU)과 같은 수준이다.

▶관련기사 3면

이와 함께 이날 한미 정상회담 계획도 발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향후 2주 내로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과 관련, 대통령실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미국과의 관세협상에서 상호관세만이 아니라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의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이 한국에 8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고한 상호관세 25%는 15%로 낮아진다”며 “또한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인 자동차 관세도 15%로 낮췄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자동차 품목 관세가 15%로 결정된 것과 관련 “아쉬운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정책실장은 “우리가 12.5%로 최선을 다해서 주장했으나 거기까지였다”고 전했다.

한국 농민들과 소비자들에 민감했던 이슈인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한미 관세협상 주요 합의 사항

상호관세율	25% → 15%
자동차 품목관세율	25% → 15%
대미 투자펀드	3500억 달러
미국산 LNG 등 구매	1000억 달러
반도체·의약품 관세	최혜국 대우

로 했다. 김 정책실장은 미국과 합의 과정에서 농축산물 시장 개방에 대한 강한 요구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식량 안보와 농업의 민감성을 감안해 국내 쌀과 소고기 시장은 추가 개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합의 결과 조성될 3500억 달러 규모 펀드와 관련해서는 “한미 조선험력 펀드 1500억 달러는 선박 건조, MRO(유지·보수·정비), 조선 기자재 등 조선업 생태계 전반을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이어 “조선 분야 외에도 반도체, 원전, 이차전지, 바이오 등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보유한 분야에 대한 대미 투자펀드도 2000억 달러 조성될 예정”이라며 “우리 기업이 전략적 파트너로서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크고, 미국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의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한미 무역협상 타결 관련 브리핑에서 미 조선험력 ‘마사(MASGA·Make American Shipbuilding Great Again)’ 프로젝트가 무역협상 타결에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마스가 프로젝트가 “조선업



李 대통령 “큰 고비 넘어”... 트럼프 “안전한 합의”

고 말했다. 오른쪽 사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날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 도중 미소 짓는 모습.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위공직자 특강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그간 악영향을 우려해 말을 안 했던 것”이라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고, 국력을 키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반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수요에 기반해 사실상 우리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이라며 “세계 최고 수준의 선박 설계·건조 능력을 가진 우리 조선 기업들이 미국 조선업 부흥을 도우며 새로운 기회와 성장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날 무역 협상 타결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세계 최대시

장인 미국과의 협상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의 첫 통상분야 과제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 협상으로 정부는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미국 관세를 주요 대미 수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으로 맞추으로써 주요국들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고 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

국 무역 협상 대표단과 만난 뒤 자신의 소셜 네트워크(SNS) 트루스소셜을 통해 “대한민국과의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고 제일 먼저 알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택하는 투자를 위해 3500억 달러를 미국에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세나 기자 saena@viva100.com

법인세, 모든 기업 1%p씩 상향... ‘최고 35%’ 배당 분리과세

이재명 정부 첫 세제개편안

증권거래세·양도세도 文정부 복귀
다자녀 신용카드 공제·한도 확대
전년 대비 8조원대 세수 증가 전망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인세와 증권거래세, 대주주 기준은 문제인 정부 때와 같이 복원했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원상복구’하며 사실상 증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해석도 나온다.

기획재정부는 31일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정부는 우선 고배당 기업의 배당소득은 저

율 분리과세하고, 기업들이 배당을 늘리도록 환류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는 장치를 마련한다.

정부는 고배당 기업에서 받은 배당소득은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분리 과세 하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소득 세율은 2000만원 이하는 14%, 2000만~3억원은 20%, 3억원 초과는 35%다. 현재는 배당소득이 2000만원 이하일 때는 14% 원천징수하지만, 2000만원 이 넘으면 종합소득으로 과세해 15~45%로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또 정부는 과세 기반 강화를 위해 우선 법인세 최고 세율을 이전 24%에서 25%로 상향하는 등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의 모든 세율을 1%포인트씩 상향 조정했다.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요건도 전 정부의 50억원 이상에서 10억원 이상으로 되돌렸다.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함께 세율을 낮춘 증권거래세는 금부세 도입이 무산됨에 따라 이전으로 세율이 복원(0.05%-0.20%)된다. 금융·보험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대신 부과하는 교육세는 1조원을 초과하는 수익 금액에 대해 교육세 세율을 0.5%에서 1%로 상향 조정 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본인여금 감액 배당 시 대주주 등에 대한 과세 제도를 도입하고 국의 전출세 과세를 국내 주식에서 해외 주식까지 확대한다.

세제 지원을 통한 인공지능(AI) 발전, K-콘텐츠 산업 활성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전략기술에 AI 분야 5개 기술을 추가하고 데이터센터를 사업화 시설로 지정해 기업의

AI 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웹툰 제작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로 도입하고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해서도 세제 지원을 늘린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기간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한다.

다자녀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현 250만원, 300만원에서 자녀 1명당 25만원 또는 50만원씩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이번 세제개편에 따라 세수는 전년 대비 8조16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안은 입법예고 후 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9월 3일 이전 내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세종=이원배 기자 lwb21@viva100.com

아이오닉5 국내 생산량 美 관세 영향 60% 격감

현대자동차의 주력 전기차 아이오닉5의 국내 생산이 반토막 이상 났다.

31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 1-5월 아이오닉5의 국내 생산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1.4% 감소한 2만6569대에 그쳤다.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에 이어 설산가상 미국의 고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현대차가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국내 생산이 줄어든 것이다.

실제 아이오닉5는 현대차그룹이 11조7200억원을 투입한 미국 조지아주 신공장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를 통해 올 상반기에만 2만8957대가 생산됐다.

업계 안팎에서는 대미 자동차 수출 관세가 15%로 낮아지긴 했지만, 국내 일자리 축소를 우려하고 있다.

그동안 아이오닉5는 전량 국내에서 생산돼 미국에 수출됐었다. 연간 미국에 판매된 아이오닉5는 2만5000대가량이다. 이 물량의 생산지가 고스란히 한국에서 미국으로 옮겨간 셈이다. 전기차가 ‘미래차’란 점에서 장기적으로 국내 일자리 감소 폭은 더 클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최대 경쟁사인 일본 토요타와 관세도 같아졌다. 현대차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 덕분에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했지만, 토요타는 2.5%의 관세를 부담해 왔다.

이익제 현대차 노조 미래변화대응 태스크포스 위원은 앞서 미국이 25% 관세를 부과했을 당시 “한국의 북미 자동차 수출량이 70만대 안팎 감소했을 것”이라며 “이는 국내에서 현대차 공장 2개가 사라지고, 7000개의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간 50만대 내외의 현대차가 관세에 노출돼 있는 만큼 관세 1%당 부담은 1500억원 안팎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천원기 기자 1000@viva100.com

강남 고가주택 싹쓸이... 외국인 ‘부동산 쇼핑’ 法으로 규제한다

국힘, 토론회 열고 법제화 속도

내국인 역차별 내집마련 기회 박탈
실거주 확인 의무화 등 입법 추진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매입이 급증하면서 국회가 이른바 ‘외국인 부동산 쇼핑’에 제동을 걸기 위한 규제 논의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부동산시장안전화대응TF는 31일 국회에서 ‘외국인 부동산 싹쓸이’ 점검 및 역차별 방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 급증으로 인한 시장 교란과 내국인 역차별

문제를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최근 강남·제주·해운대 등에서 외국인의 부동산 매입이 집중되고 있으며, 실거주가 아닌 투기 목적의 사례도 적지 않다”며 “반면 우리 국민은 각종 규제로 내집 마련 기회가 박탈당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고 외국인에 특혜를 주는 자국민 역차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실거주 확인 의무화, 부동산 거래 사전 허가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취득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정종대 서울시 부동산정책개발센터장은 “전국 외국인 보유 주택 약 10만 가구 가운데 23.7%가 서울에 집중돼 있다”며 “특히 서울 내 외국인 보유 주택 중에서도 강남·서초의 30억원 이상 고가 주택 거래 외국인 비율이 72.2%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토론회에 나선 권대중 서강대 교수는 투기성 거래를 막기 위해 주택 보유 기간과 취득 목적을 구분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차등 규제·과세와 취득·보유·양도 단계별 규제 강화가 가능한 ‘다층적 활용 모델’ 도입을 제안했다.

김성호 한국대안투자자산운용 고문은 “체류 자격 없는 외국인은 허가제로 강력

히 제한하고, 영주권자·취업비자 소지자는 실거주 목적에 한해 허용하되 투기성 거래는 차단해야 한다”며 세제 활용과 빈집세 도입을 제시했다.

이날 전문가 다수는 외국인 규제 설계 시 상호주의 원칙을 주요 전제로 삼아야 한다고 봤다. 즉, 한국인의 해당 국가 내 부동산 취득 허용 여부와 조건을 비교해 제도를 설계하는 방식이다.

반면, 국힘 이종욱 의원은 “이미 국가적·국민적으로 문제가 발생한 만큼 대책 마련이 불가피하다”며 “부동산 분야는 상호주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을 냈다.

박유진 기자 pyj@viva100.com